

‘경제 살리기’ vs ‘정권 심판론’

■ 4·29 재보선 후보등록

14일부터 이틀간 4·29 재보선 후보가 등록하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 동안 불꽃 튀는 접전을 벌이게 된다.

이번 재보선은 인천 부평을·울산 북구·경북 경주·전주 완산갑·전주 덕진 등 국회의원 선거 5곳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1곳,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5곳, 교육감 2곳 등 모두 16곳에서 치러진다.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를,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는 유일한 수도권인 인천 부평을이 꼽히지만 여야는 텃밭 승부에 애를 태우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재보선은 ‘미니 선거’지만 지

한, 일단 우세 속 ‘친박·단일화’ 파괴력에 촉각

민, 호남 텃밭 지키기·인천 부평을 공략 ‘올인’

난해 총선 1년 만에 실시되는 데다 올해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의 민심 향배까지 저울질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될 전망이다.

일단 재보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여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정동영 전 장관의 무소속 출마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로비 의혹 연루 등 각종 약제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내부를 들여다 보면 속내는 간단치 않다.

당장 경북 경주와 경북 울산 북구 선거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주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바람이

불고 울산 북구에서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단일화가 파괴력을 발휘한다면 텃밭인 영남에서 단 한석도 얻지 못할 수 있다.

다만 호남 출신의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후보로 내세운 인천 부평을에서는 민주당에 비해 우세한 상황이라는 것이 자체 평가다.

이를 반영하듯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29 재보선과 관련, “초반 판세이지만 고무적”이라며 “우리가 승리의 고지까지 오르려면 많은 땀을 흘리고 많은 장애를 극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온갖 약제에

둘러싸인 가운데 재보선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무소속 출마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로비 의혹 등 각종 약제를 극복하고 ‘정권심판론’의 불씨를 살려 재보선 승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15일 최고위원회의를 부평에서 갖는 등 재보선 최대 승부처인 인천 부평을 공략에 ‘올인’키로 했다.

한편 전주 덕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김근식 후보와 무소속 정동영 후보는 14일 각각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 지도부는 텃밭이면서도 고전이 예상되는 전주 덕진과 완산갑 후보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호남 지역구 지키기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ju.co.kr



태국 시위대 자진 해산

태국 한 여성이 14일(현지시간) 방콕의 총리 사무실 앞 도로를 막고 있는 군인들 앞을 가로질러 달려가고 있다. 격렬한 시위와 농성으로 전시상황을 방불케 했던 방콕시내는 반정부 시위대가 자진 해산함에 따라 빠르게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다. 이번 사태로 방콕에서는 2명이 숨지고 123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北 “핵 개발 계속”… 긴장 불가피

■ 6자회담 불참 선언 배경과 전망

안보리 의장성명 맞불… 美 직접 비난은 안해

지난 2003년 8월 출범해 5년7개월 여간 지속돼 온 북핵 6자회담이 다시 위기를 맞았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에 대해 북한이 6자회담 거부를 단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북한은 14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의 어떤 합의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이 그동안 술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북한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6자회담 불참’을 못박은 적은 없었다.

정부 당국자들도 6자회담이 큰 도전에 직면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북한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그대로 지키는 성향이 강하다”면서 “북한의 ‘6자회담 불참’ 선언을 의례적인 엄포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북한이 성명에서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대북도 경제적 지원에 연연해 6자회담에 매달리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북한이 의장성명 채택 과정에서 6자회담 의장이자 혈맹인 중국의 역할에 대해 실망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도 6자회담의 미래에 암운을 드리운다. 북한이 6자회담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동안 6자회

담 틀안에 머문 중요한 이유중 하나가 의장국인 중국의 체면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6자회담을 깨는 대신 미국과의 양자협상에 더욱 매달릴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이날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와 일본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은데서도 이같은 의도가 읽힌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의 의도는 가능한 한 6자회담을 무력화하고 미국과의 양자구도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당장은 6자회담을 거부하더라도 결국은 6자회담의 틀에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미국이 6자회담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북한도 미국과의 협상을 진전시키려면 6자회담에 계속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무등산 개발 조례안’ 재충돌

○…시민·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하 무등산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논란이 광주시 의원간 감정싸움으로 비화됐다.

광주시의회 송재선 의원(서구1)과 유재신 의원(광산구2)은 14일 제1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무등산 조례안과 관련한 상대위원의 발언을 비난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조사를 요구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송 의원은 “모 방송사 주최 공개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유 의원이 ‘3대 의회 때 올라온 개발 조례와 거의 똑같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윤리특별위원에게 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신상발언에 나선 유 의원은 이에 대해 “무등산의 ‘개발이냐’ ‘보존이냐’라는 논의의 본질은 사라

진 채 비공식석상에서의 발언을 놓고 공식석상인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무등산 이야기를 만들자”

○…광주시의회 양혜령 의원(동구1)은 14일 제17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문화중심도시 건설과 연계해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에 대한 스토리뱅크 구축과 무등산 문화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무등산과 관련된 설화·민속·지명·방언·유적·유물 등 3천 점 넘는 한문자료가 있는데 후손들이 접할 수 있도록 번역 작업 등 무등산의 ‘스토리텔링화’와 ‘콘텐츠화’가 필요하다”며 “자료를 알고 계신 분들이 연료하고 한문 번역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美 한인 또 경찰 총격 사망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동쪽 인근 풀섬시에 사는 한국계 청년이 12일 오전(현지시간) 자택에서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현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주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살배기 딸을 태우고 운전하던 한인 여성이 경찰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 직후 발생한 것이어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13일 새크라멘토 한인회와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 조셉 한(24)씨는 UC어바인대를 졸업한 뒤 최근 특정 종교에 심취,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여왔다. /연합뉴스

새로운 출발 성공의 첫단추 - www.kinyounul.co.kr

대학면담은 역시 김영

김영면담학원 [광주동부동합서위] 227-8088

면담영어 전문강좌

김영 TEST

신행안내

남성강한 힘

자신감을 높이는 30-60대 남성들 위한 남근 개량제인 에프엑스(Ex)를

- ▶ 혈액순환을 도와 남성 활력증진
- ▶ 강한 힘과 자신감을 선사함
- ▶ 건강성능개선도 현상하고 상하

TEL: 061-5281-8000

11월 11일 0600-8118